

(2016. 3. 22.)

회 의 록

(2016년도 정기이사회 - 2015년 결산보고)



사회복지법인 경남복지재단

회 의 록

1. 일 시 : 2016년 3월 22일 19시
2. 장 소 : 진주 아리랑 한정식
3. 참 석 자 : 한삼협 대표이사, 오시환 이사, 허호영 이사, 정영선 이사,
심규환 이사, 한승협 이사 김봉만 감사
4. 안 건 : 2016년 정기이사회

<회의순서>

- 1) 개회선언
- 2) 성원보고
- 3) 법인현황보고
- 4) 대표이사 인사
- 5) 감사보고
- 6) 부의안 심의
(1)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7) 이사연임건
- 8) 기타 토의
- 9) 폐회선언

5. 회의 진행사항

대표이사 한삼협은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사들이 참석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사님들의 위임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정기이사회 개최를 선언하고 회의 순서와 같이 의결함

<개회선언>

한삼협 대표이사 : 2016년 도 벌써 1분기가 지나고 있다.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법인 정관 28조에 의거 이사님들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이사회가 성원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 인사말씀>

한삼협 대표이사는 간단히 인사를 마친 후, 법인 현황에 대해 보고한다.

한삼협 대표이사 : 첫번째 순서로 김봉만 감사님의 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보고>

김봉만 감사 : 2015년도 결산에 대해 감사를 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세입·세출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2015년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고.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2016년에도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삼협 대표이사 : 감사합니다. 이사.감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오시환 이사 : 아무 문제가 없는거 같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동의합니다.

정영선 이사 : 전문가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므로 제청합니다.

허호영 이사 , 한승협 이사 : 제청합니다.

한삼협 대표이사 : 예, 이사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감사보고 심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안건에 다른 의견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참석인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함)

<의안심의>

한삼협 대표이사 : 그럼, 의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사회복지법인 경남복지재단과 하동요양원, 하동노인통합지원센터, 천년사랑노인복지센터의 실적 및 결산 보고를 심의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삼협 대표이사 : 먼저 사회복지법인 경남복지재단(이하 하동요양원, 하동노인통합지원센터, 천년사랑노인복지센터 포함)의 2015년도 실적보고 및 결산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역시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각 시설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보고 사업실적 및 결산(안)을 보고한 후)

박혜정 하동요양원 사무국장 :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큰 공사를 했다. 먼저, 지붕방수 공사와 산책로 확보 및 화단조성, 그리고 노후된 장판교체,

소방법에 따른 자동개폐기 설치까지 한해동안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환경을 위해 많이 노력을 했다. 사무국에서는 직원복지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복지팀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질적 향상을 위해 애썼고, 물리치료는 최대한 많은 어르신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영양팀 에서는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최대한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내년에도 올해를 발판으로 하동요양원의 많은 변화를 시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삼협 대표이사 : 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활동하여 외부자원을 많이 끌어오는 것이다. 아직 부족하지만 올 한해도 두발로 열심히 땀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2015년 하동노인통합지원센터 한문협 센터장님의 결산보고 와 천년사랑노인 복지센터의 결산보고가 있겠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보고 사업실적 및 결산(안)을 보고한 후)

한문협 하동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저희센터는 경상남도와 하동군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현재 80케이스 정도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인 노노케어는 하동노인회등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단 한분의 어르신들께 소홀함이 없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삼협 대표이사 : 천년사랑센터는 소규모시설로 방문요양을 중점으로 수곡,명석, 대평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40케이스 정도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항상 최선을 다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말씀 덧붙이자면, 하동센터와 천년사랑센터에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여 자생단체의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단체들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어깨동무하며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끌어내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시환 이사 :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시는 대표이사님 비롯 임직원 여러분들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보조금은 다른 곳에서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입소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해지는건지?

한삼협 대표이사 : 보조금은 정부에서 정해져 있기에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소자부담금도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국 요양원은 같은 금액으로 통일 하고 있습니다.

오시환 이사 : 제가 얼핏 듣기론 군에서 재가센터를 할려고 하지만 90% 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실정이라 추진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잘 추진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에 제청합니다.

김봉만 감사 : 대표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많은 사업을 활성화 시켜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청합니다.

허호영 이사 : 그렇습니다. 보조금수입 같은 경우 더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에 제청합니다.

정영선 이사 , 한승협 이사 :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임·직원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저도 제청합니다.

한삼협 대표이사 : 예, 그럼 이.감사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2015년 경남복지재단, 하동요양원, 하동노인통합지원센터, 천년사랑노인복지센터 결산(안) 심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안건에 다른 의견이 없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참석인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함)

한삼협 대표이사 : 저희 법인은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주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청소년자원봉사대상에서 후원을 해준 한국남동발전을 들 수 있을것입니다. 이 계기를 발판으로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좋은 행사들을 활성화 시킬 것을 약속드리며, 어르신들이 안락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방향을 개선하여 더 나은 법인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 연임건>

한삼협 대표이사 : 저희 법인 이사회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사외이사를 제외한 이사분들의 임기가 2016년 3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 연임건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김봉만 감사 : 모두들 바쁘신 가운데 경남복지재단의 운영철학이 마음에 들

어 모두가 마음을 보태고 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연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시환 이사 : 감사합니다. 다른 이사분들이 잘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계속해서 연임해주시길 제청합니다.

정영선 이사 , 허호영 이사 , 한승협 이사 : 제청합니다.

한삼협 대표이사 : 김봉만 감사님께서 이사님들을 한번 더 연임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동의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감사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오시환, 박수진,손양곤,허호영,서원찬,한승협 이사님의 이사연임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연임되신 이사님들의 수락사가 있겠습니다.

(안건에 다른 의견이 없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참석인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함)

허호영 이사 : (연임해주신것에 감사를 표한 뒤) 본 법인에 누가 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환 이사 : (연임해주신것에 감사를 표한 뒤) 영광입니다. 언제든지 본 법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고, 계속해서 같이 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박혜정 하동요양원사무국장 : 이사연임 해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연임시 필요서류에 관해서는 연락을 드리고, 법인사무국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이사님들을 찾아 뵙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연락 드리겠습니다.

<기타토의>

한삼협 대표이사 : 3월입니다. 폐회하기에 앞서 2016년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모집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봉사단체들이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봉사단체 기관들을 찾아가 기관브리핑을 하며 법인과 시설을 알리고 봉사단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인 족구장을 건설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동군과 협의중에 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천년사랑 복지숲 조명 조성 입니다. 한국남동발전과 연계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아직 진행초기라 말씀 드리기가 어렵지만, 성공적인 협의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방문목욕차가 많이 노후 되어있습니다. 목욕차 역시 라이온스와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올 봄이 가기전에 차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임직원 모두는 이사. 감사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폐회선언>

한삼협 대표이사 : 다들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장시간 배려해주신 이사.감사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회의를 폐회하고 참석이가 전원 날인을 받다.

2016년 03월 22일

사회복지법인 경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한 삼 협

이 사 오 시 환

이 사 허 호 영

이 사 정 영 선

이 사 심 규 환

이 사 한 승 협

감 사 김 봉 만